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11.29.(화) 08:00
담당부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회전익항공대	대 장	경감 이병찬 (032-728-8179)
		담 당	경위 서용채 (032-728-8396)
홍보부서	기획운영과 홍보계	보도담당	경위 박세은 (032-728-8212)
사진(2장), 영상 없음			

하늘에서 지킨 우리 바다 37년...정년 퇴직 앞둔 권중철 기장

- 중부해경청 인천항공대 권중철 경위, 무사고 비행 5천 2백시간 -

“하늘에서 청춘을 바쳐 지키던 아름다운 우리 바다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37년 9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키던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 기장 권중철 경위(60세)가 11월 23일 마지막 고별 비행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서 태어나 1985년 해군사관학교(39기)를 졸업한 권 경위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20년, 해양경찰에서 17년 등 총 37년 9개월 동안 헬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권 경위는 해양경찰과 해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무사고 비행 5천 2백시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고, 오는 12월 말 젊음과 열정을 바친 해양경찰을 정년퇴직한다.

해군 항공대에서 소령으로 전역한 권 경위는 지난 2005년 해양경찰에

투신하여 해경헬기 조종사로 17년 동안 서해, 동해, 남해, 제주 등을 거치며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켰다.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우리나라 바다를 37년 9개월 동안 비행한 권 경위는 5천 2백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동료, 후배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라고 전했다.

“바다 위를 헬기를 타고 비행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양경찰 헬기에 탑승해서 함께 비행하는 부기장, 정비사, 전탐사, 항공구조사와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고, 기장이 동료들과 사소한 의견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항공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981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5년 졸업한 뒤 헬기 조종사가 된 권 경위는 해군에서 대함 및 대잠 작전 헬기인 ALT-III(알루엣-3)와 UH-1H, 고정익 항공기(T-41, T-37) 등을 조종했고, 해군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조종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해군을 전역한 뒤 해양경찰에 들어온 이후로는 해경이 운용하는 AW-139, 팬더, 카모프, 흰수리 등의 헬기를 모두 조종했고, 바쁜 비행 일정 속에서도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권 경위는 해양경찰 재직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021년 2월 경북 경주 앞 해상에서 전복된 거룡호 전복 사고를 꼽았다.

“헬기를 타고 사고 해상 부근을 수색하다가 어선이 전복된 후 이틀 만에 실종된 선원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해상 수색 노하우로 하늘에서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말 정든 해양경찰 인천회전익항공대를 떠나는 권 경위는 해양경찰과 해군에서 근무한 선후배와 동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금까지 제가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비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주었던 해양경찰과 해군의 선배, 동료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항공구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권 경위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기도가 있어서 무사히 정년 퇴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며, “해양경찰을 떠난 후에도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항공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정년 퇴직 후의 계획을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회전익항공대장 이병찬 경감은 “조그만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분야에서 37년간 5천 2백시간을 무사고로 비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권기장의 조종 실력, 인화력, 인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킨 권경위의 노고에 항공대원 전원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